

이인직 문학의 주변

-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 -

표세만*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동경정치학교(東京政治學校)와 주변 인물들
- III.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와 이인직
- IV. 나오며

【 】

한국 근대문학의 문제적 작가 이인직은 삶의 대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인직이 일본에 남긴 체류 흔적은 그의 문학세계는 물론, 그로부터 시작된 한국 개화기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인직이 본인 이력서에 유일한 학력으로 기재한 ‘동경정치학교’는 귀국 후의 언론, 정치활동과 관련해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동경정치학교는 이토 히로부미의 입헌정우회가 지원한 정치인 양성 전문학교로 교장 마쓰모토 군페이는 물론, 학교 운영에 참여한 상의원과 강사진은 이인직의 근대적 지식 함양과 그가 귀국하는 과정, 귀국 후 조선에서의 정착 및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 같다. 특히 교장 마쓰모토와는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의 『신문학』은 이인직의 문학과 정치의식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신문기자를 했던 마쓰모토는 신문을 「국민교육 대학」이라고 정의하면서 국민교육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를 강조했다는데 이는 이인직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토대라 하겠다.

주제어 : 이인직, 마쓰모토 군페이, 동경정치학교, 개화기소설, 신문학

* 군산대학교

I. 들어가며

한국 근대문학의 가장 문제적인 작가로 우선 이인직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삶 대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문학의 출발점에 『혈의 누』가 있지만 어떻게 이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개화기문학 전반에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정치소설의 ‘이식’ 또는 ‘결핍’으로 개화기 소설을 이해하는 태도다.¹⁾

근대소설 이행기에 등장했다는 점, 대중 계몽이 목적이란 점에서 일본 정치소설과 개화기소설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인직으로 하여금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정치소설을 규범으로 삼게 한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인직을 비롯해 이광수, 최남선 등 근대문학 창조자들이 일본에 유학한 1895년부터 1905년의 일본 문학환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직이 유학한 1900년을 전후한 시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배타적 대외의식이 고양된 시기로 일본은 천황제 국민국가 완성에 매진했고 문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문학은 ‘민족’, ‘국민’, ‘신민(臣民)’, 혹은 근대적 ‘시민’으로서 전체주의에 대항, 또는 호응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개인’을 그려낸다. 작가들은 작품 속에 개인주의자부터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까지 각자의 정치이념을 체현한 ‘정치적 개인’을 만들어 독자를 설득, 혹은 계몽했다. 이인직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문학을 적극적으로 접했다면, 당연히 이상과 같은 문학 환경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인직의 일본 체류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우선 필요하

1) 임화가 『개설 신문학사』(『조선일보』, 1939.9.2.~10.31)에서 언급한 『외국문학의 수입과 모방』이란 인식, 김윤식(1986)의 『『정치소설』의 결여 형태로서의 신소설-이인직의 경우』, 『한국 근대소설사 연구』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다. 선행연구로는 구장률²⁾과 함태영³⁾, 그리고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行)의 일련의 연구⁴⁾를 들 수 있다. 각 연구자들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했지만 이인직이 다녔던 동경정치학교(東京政治學校)와 그 주변인물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동경정치학교의 구체적 교육내용과 학교 관계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교장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는 강사로서 언론(신문)수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인직의 귀국 후 활동을 이해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상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 등을 보강하여 이인직의 일본체험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이인직의 근대적 지식 함양과 언론 및 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정지작업으로 향후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Ⅱ. 동경정치학교와 그 주변 인물들

1. 동경정치학교

이인직은 『대한제국 관원 이력서』에 1900년 2월 일본에 유학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1900년 3월 13일 자 『황성신문』 「잡보」 기사⁵⁾처럼 이인직은 사비유학생 신분이었다가 1900년 국비유학생으로 전환, 그해 9월 동경정치학교에 입학한다. 이인직이 언제 일본에 입국해 어떻게 동경정치학교에 입학했는지, 그 경위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40세 가까운 만학도란 짐까

2) 구장률,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동방학지』, 2006.

3)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현대소설연구』 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4)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

5) 강현조,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 『우리말글』 43, 우리말글학회, 2008.

지 덧붙여져 학교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⁶⁾까지 있다.

그렇지만 동경정치학교는 1898년 9월 28일 동경부(東京府)가 허가한 정식학교⁷⁾로 간다구(神田區) 우라사루가쿠 정(裏猿樂町)에 있었다. 교장은 마쓰모토 군페이였지만, 학교 설립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나 청일 전쟁을 기획한 외무장관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가 관여하고 있다. 1896년 미국에서 귀국한 마쓰모토는 『東京日日新聞』 객원기자 및 『東京新聞』 주필로 활동하다 이토와 무쓰를 만나고, 두 사람의 지원 하에 정론(政論) 잡지 『大日本』을 창간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경정치학교를 설립하는데, 학교 운영에는 무쓰의 심복인 호시 도루(星亨)나 이토 히로부미의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⁸⁾가 깊이 관여한 듯하다.

학교 설립 취지서나 학교 선전광고처럼 이 학교는 “정치가, 웅변가, 신문기자, 외교가, 경제가” 및 건전한 “공민(公民)” 양성을 목표⁹⁾로 삼는다. 또

6) 유희봉, 『이인적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재고찰』(2011)은 동경정치학교 실체가 모호하다며 『과도한 의미부여』에 문제 제기한다. 유희봉은 아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기억과 田中英夫 『山口孤劍小伝』(花林書房, 2006.3)을 근거로 삼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할 수 없으나 아마카와의 기억처럼 학교가 일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가 있었다. 田中の 주장은 이하 본고에서도 다룰 『東京府統計書』란 자료를 근거로 하나 그의 주장은 『東京府統計書』에서 중요한 데이터 몇 가지를 누락함으로써 생긴 오해다.

7) 東京都公文書館 『私立學校設置指令按(松本君平より私立東京政治學校他1校設置願、認可、他)』(기안 년월일: 1898年 09月 28日)

8) 『北海道新聞』의 山口喜一라는 동경정치학교 출신 원로 언론인은 훗날 『月刊·新聞資料』(73号, 1965.1)에서 『무쓰 무네미쓰의 지원』을 받아 학교가 설립되었고 『정치학교 자금은 정우회(政友會)』에서 나왔으며 학교 주인은 호시 도루(星亨)였다고 진술한다. (藤原恵 『新聞學を拓いた人たち』, 『關西學院大學社會學部紀要』, 1967.12에서 재인용) 또 정치기자이자 평론가 마에다 렌잔(前田蓮山)은 동경정치학교가 『政友會本部の地下の會議室』이었고, 그곳에서 『政黨學』의 講義, 했다고 술회한다. (인용은 前田又彦 『政治記者 前田蓮山物語』, 2018. 3)

9) 예를 들어 松本君平 『雄弁學』(警醒社, 1901.7) 권말 수록 광고에서 『유위(有爲)의 청년에게 정치적 학술을 가르쳐 고등 문관, 각 의회 의원, 외교, 신문기자가 된다. 동시

마쓰모토는 인재 육성의 기초 지식으로 ‘정치학’을 제안했는데 이때의 정치란 “국가학, 경제학, 법률학, 재정학, 군정학, 통계학, 정치역사, 헌법학, 행정학, 국제학이 있고, 외교학, 신문학, 웅변학 등 한 나라 정치에 관한 모든 학술 연구를 포괄”¹⁰⁾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교가 다른 여러 전문학교와 그 취향을 달리하는 바는 오늘날 실제 사회의 긴급함에 대응해 오직 외교관, 신문기자 내지는 대의원(代議院) 의원 자격을 양성하는 데 있다. 앞으로 여러 나라와의 교제가 더욱 빈번해질 터이니 좀 더 외교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고, 헌정(憲政)의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니 대의원(代議院)이 좋은 의원을 더욱 급하게 요구한다. (중략) 본교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응하여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¹¹⁾

마쓰모토는 기존의 학교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된 편협한 전공교육에 치우쳤다는 점, “사제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동경정치학교라 말한다. 그래서 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외교관, 신문기자, 의회 의원으로 당장 활동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또 동경정치학교는 세계적인 엘리트학교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마쓰모토는 정치학교가 “프랑스 자유정치과학 학원(École libre des sciences politiques)¹²⁾”이나 영국의 법정변호인 양성 및 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합조직 “미들 템플(The Honourable Society of the Middle Temple),”

에 한 명의 공민으로서 일가(一家)를 관리하고 하나의 사업을 경영하기에 필요한 학식을 부여하는 것」이 동경정치학교의 목적이라고 천명한다.

10) 松本君平, 『新聞學付録 東京政治學校設立の趣旨-政治學校開校式演說會に於ける予が演說の大意也』, 『新聞學』, 1899. 12. 3.

11) 위의 松本君平의 글.

12) 프랑스의 우수한 엘리트 양성학교 파리정치학원(IEP de Paris)의 전신으로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프랑스정치대학’이라 불렀다.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 재정경제학교(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Economy)”의 장점만을 절충했다며 그 실용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외교, 언론, 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 ‘신문기자’라고 말한다. 본인의 미국 체험, 즉 『필라델피아 프레스』나 『뉴욕 트리뷴』 기자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훨씬 광대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업(商業)으로 성공한 거대 신문지배인은 반드시 놀랄 만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은행 지배인이건, 대기업 대표건, 정부의 행정 수령”¹³⁾이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이 무렵 비슷한 사립학교 중 사회과학 계열, 특히 법률 전문학교인 게이오의숙(慶應義塾大學部)이나 동경전문학교(早稻田專門學校), 동경법학원(東京法學院-현 중앙大學), 사립 전문학교(私立專修學校), 메이지법률학교(明治法律學校), 화불법률학교(和仏法律學校-현 法政大學)가 동경정치학교와 함께 언급되곤 했다. 동경정치학교는 이들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이수한 17세 이상 학생, 또는 일정 시험 합격자만이 입학 가능¹⁴⁾했으며 편입학과 특례입학, 통신교육을 받는 교외생(校外生), 한, 두 과목만을 수강하는 찬과생(撰科生) 제도도 함께 운영했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동경부(東京府)에서 편찬한 『東京府統計書』 기록의 동경정치학교 강사 및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898년 강사 40명/학생 97명, 1899년 강사 13명/학생 102명, 1900년 강사 11명/학생 100명, 1901년 강사 10명/학생 120명, 1902년 강사 10명/학생 135명, 1903년 강사 8명/학생 50명(1902년 3월 31일 기준, 졸업생 10명)이었다. 학생이 가장 많았던

13) 위의 책, 『新聞學』, p.15.

14) 『東京就學案内』(1901.5, 四海堂), 그리고 또 다른 취학 안내서인 蛟龍子編 『男女東京學校案内』(1902.9, 大學館)에서는 「법정(法政)」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동경제국대학의 「법과대학」 및 「司法省指定學校」와 나란히 동경정치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1902년을 기준으로 타 학교와 비교하면 메이지법률학교는 강사 48/학생 1,784명, 동경법학원은 강사 44명/학생 1,260명, 화불법률학교 47명/1,124명, 전수학교 강사 27명/학생 700명 등이다. 각 학교마다 운영 학과나 방식이 달라 단순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단일 학과를 운영한 동경정치학교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또 정치인, 언론인을 지향하는 동경정치학교와 달리 위에 열거한 법률전문학교는 사법성 지정학교(司法省指定學校)로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게이오의숙의 대학부(정치, 법률, 이재, 문학부문)는 강사 51명/학생 320명으로 강사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지만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1년 학비가 36엔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동경정치학교를 비롯한 다른 사립학교는 매월 1.5엔, 연간 18엔(단, 동경법학원은 16.5엔)이었다¹⁵⁾. 이는 다시 다루겠지만 동경정치학교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시 폐쇄라는 사태를 맞는다.

한편, 동경정치학교의 일주일 수업¹⁶⁾은 대략 다음과 같다.

〈표 1〉

	제 1 교시	제 2 교시	제 3 교시
월	경제학(松本)	정치제도(小松)	농정(山本)
화	외교사(杉)	화폐학(小手川)	화폐학(小手川)
수	법률학(小澤)	일본정치사(福地)	농정(山本)
목	법률학(小澤)	정치제도(小松)	신문학(朝比奈), 응변학(松本)
금	경제학(松本)	상공사(和田垣)	문학(長田)
토	중국 정치사(竹越)	금융학(小手川)	과외(課外)

15) 위 진학 안내 책자. 와세다 대학의 전신 동경전문학교는 전기(前期) 수업료 12엔, 후기(後期) 10엔으로 연간 22엔을 냈다.

16) 成瀬公策,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學校(下)』, 『静岡縣近代史研究』, 2002.10)에서 재인용.

1898년 11월 시점 시간표인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매 수업은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에 끝났으며 일주일 과목당 수업 시수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되었고 한 학기 24주 남짓 이뤄진다¹⁷⁾. 위 표의 강사는 10명 남짓인데 이는 각종 광고의 40~50여명 강사 수에 비해 적지만, 『동경부 통계서』 등재 강사 수와는 일치한다.

토요일 세 번째 시간의 ‘과외’ 수업은 동경정치학교의 가장 특징적인 수업이다. 이 수업은 “정계, 저널리즘, 학문 세계 등 제 일선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강연¹⁸⁾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광고에 등장하는 40~50여명의 ‘강사’들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현실 사회의 실제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 마쓰모토의 지적처럼 돈독한 ‘사제 관계’를 형성해 정계, 학계, 언론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무교육을 중시하는 수업 특성 상, 신문과 정치, 그리고 법률과 관련한 모의 퍼포먼스도 많았다. 모의의회(模擬議會)와 청년 웅변회(青年雄辯會)¹⁹⁾가 대표적인데 유력인사의 과외 수업 못지않게 이 행사도 자주 신문에 실렸다. 모의국회 및 웅변회에서는 사회적 현안을 직접 다루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정치가로서의 실질 역량을 함양한 것이다.

17) 위의 前田又彦 『政治記者 前田蓮山物語』에서 마에다는 「每週 1 時間半の時間が与えられ、半年間に二四回の授業を行う。蓮山にとっては教壇に立つのは初めてであったが、無報酬のこの仕事に熱が入っていた。」라 증언했다. 明治専門學校도 「수업연한은 3년, 1일 2시간, 20주간을 1기(一期)」로 삼았다. 1881년 개교 당시 학생은 500명, 교원 수는 7명이었다. (吉田善明 『法學部の歴史』, 『思索の樹海』, 1993.4.1.)

18) 『讀賣新聞』에도 1901년 2월 23일 토요일과 4월 27일 금요일 각각 빈민문제, 노동문제, 보통선거 문제 등의 주제로 강사들의 강연회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19) 1902년 2월부터 11월까지 『만조보(万朝報)』 『금일의 주의란(注意欄)』에 5회의 「동경정치학교 의회」 개최 예고가 있었고 「형법, 신문지조례 등의 개정법안, 해군 확장문제, 치안경찰법 폐지 건의안, 추가예산(전화사업비)이 의제」였으며 1903년 『만조보』의 같은 기사 항목에 9월까지 9차례의 「웅변회」가 있었다고 한다.(위의 成瀬公策 논문에서 재인용)

3년 동안 동경정치학교에서 다루는 교과목은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은 이론교육, 2학년은 심화 응용교육, 그리고 3학년에 서는 실기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표 2〉

학년	교과목	내용
제 1 학 년	경제학	최신 오스트리아 학파의 원리, 생산, 이전(移轉), 분배, 소비범론(消費汎論), 화폐학, 금융학
	국가학	순정국가학(純正國家學)의 원리
	법률학	법리학, 민법 범론
	농정학	농업 행정 논리 및 연혁
	일본 정치역사	일본 성립부터 도쿠가와기부(德川羈府) 쇠망까지
	중국 정치역사	주실(周室) 발흥에서 청조(淸朝)까지
	구미 정치역사	고대, 중세, 근세
	근세 외교사	프랑스 혁명부터 베를린 회의까지
	세계 상업사	상세(上世), 중고 및 근세
	열국 정치제도	현재 열국에서 행하는 정치제도 및 연혁
	군정학	육해군 조직 및 행정, 각국 군정(軍政) 비교연구
	정치지리학	지리와 정치 관계 및 정치적 지획(地劃)의 변천
	웅사학(雄辭學)	웅변에 관한 이론 및 웅변의 조직법
	구미 신문사업	신문학의 원리 및 각국의 연혁
	사회 정책	노동문제, 빈민문제 및 사회주의
	문학사	각국 문학 특성, 근세 문학, 정치와 문학 관계
	실지문제(實地問題)의 연구	정치, 경제, 법률, 사회의 문제에 관하여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 수련(修練), 외국어학, 도서(圖書) 연구	
제 2 학 년	경제학	은행학, 외환학(爲換學), 외국 무역학
	법률학	상법 범론, 형법 원리
	국가학	응용(應用) 국가의 원리
	외교사	상세(上世) 및 중고의 외교 역사
	사회학	사회 조직의 원리

제 2 학 년	재정학	세입, 세출 공채(公債), 예산 원리
	사회학	사회 조직의 원리
	재정학	세입, 세출 공채(公債), 예산 원리
	통계학	이론 통계, 응용 통계
	헌법학	제국헌법 및 영, 미, 독, 프, 스위스, 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헌법 비교
	국제공법	국제법 연혁, 평시 국제법, 전시 국제법 연구
	신문학	이론 및 각국의 연혁
	응변학	이론 및 응용
	실지문제의 연구	정치, 경제, 법률, 사회의 문제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수련, 외국어학, 도서연구	
제 3 학 년	경제학 제가(諸家)의 특별연구	
	국가학 제가의 특별연구	
	법률학	로마법의 연구
	행정학	각국 행정의 비교 연구
	국제사법(私法)	이론, 학설 및 연혁
	재정학	열국 현재의 재정제도 및 정태(情態)의 연구
	영국헌법 연혁사	
	구미 정당의 조직 및 연혁	
	자치제도	현군시정촌(縣郡市町村) 자치제도 원리 및 재정
	신문학	실천(實踐)
	응변학	응용
	정치학교 의회	입법원의 방법 및 토의법
	한문학, 문장수련, 외국어학, 도서연구	

일본 정부는 1899년 8월 私立學校令을 제정해 모든 학교를 관리하는데, 1903년 3월에는 專門學校令을 마련하여 문부대신이 직접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관리한다. 학사운영은 물론 교원자격²⁰⁾을 엄격하게 규정해 국립 제

20) 1903년 4월 1일 시행된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에서 교원의 자격과 관련해 「一學位ヲ有スル者, 二帝國大學分科大學卒業者又ハ官立學校ノ卒業生ニシテ學士ト稱スルコトヲ得ル者, 三文部大臣ノ指定シタル者, 四文部大臣ノ認可シタル者」로

국대학과는 별도로 專門大學이 명실상부하게 대학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동경부 통계서』의 1903년 보고에 따르면 동경정치학교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은 ‘정치, 경제, 법률’의 ‘전문학교’였다. 그런데 다음 해 『동경부 통계서』의 ‘사립 전문학교’ 항목에 동경전문학교 이름이 없다. 전문학교령 시행연도가 1903년이었지만 당해 연도 인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동경정치학교를 등재했다가 다음 해 그 지위를 얻지 못해 빠진 듯하다. 1904년 『동경부 통계서』 ‘사립 전문학교’ 항목은 물론, 기타 학교 현황을 보고한 ‘각종학교’ 항목에도 이름이 없다. ‘각종학교’ 현황 보고 말미에 ‘학생 백 명 이상’만을 게재한다는 제한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를 일시 폐쇄한 까닭인지 이후 동경정치학교는 한 동안 『동경부 통계서』에 보이지 않는다.

1904년을 기점으로 동경정치학교 이름을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와 관련해 1901년 6월 21일 호시 도루의 암살사건을 그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 소유자인 호시의 사망은 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학교 폐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마쓰모토의 본격적 정계 진출과 그에 따른 학교 관리 소홀도 있다. 1900년 입헌정우회 설립과 이후의 보통선거 운동, 『靜岡新報』 경영, 1904년 중의원 입후보 및 그해 3월 1일 제9회 중의원 당선, 다음 해 도청(渡清) 등 마쓰모토의 다양한 일정이 계속된다.

마쓰모토는 1904년 6월 동경부에 ‘私立學校規則一部改正’²¹⁾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다. 운영의 어려움이 학칙개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동경정치학교는 1912년 『동경부 통계서』 ‘私立各種學校一覽(其他の者)’에 1개 학급, 교원 4명, 학생 수 33명, 입학자 19명, 졸업자 10명이

한정한다. 동경정치학교에는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않아 학위가 없는 사람도 많았다.
21) 東京都公文書館 『私立學校規則一部改正ノ件(東京政治學校設立者松本君平へ規則改正認可、他)』(기안일자, 1904年06月07日).

란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학교 문을 닫았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열었고, 이는 최소한 1920년대 후반까지 지속²²⁾한다. 이처럼 마쓰모토가 끈질기게 유지시킨 동경정치학교는 이후 이인직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 지점인 ‘靑年敎團’²³⁾으로 수렴되어 계속 이어진다.

학교 자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인직의 졸업 시점까지 동경정치학교는 여타의 전문학교처럼 정상 운영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인직의 성실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야코 신문(都新聞)』 견습이 동경정치학교 학습과정의 일환이었고, 이인직의 근대적 지식 함양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 또한 충분히 추정가능하다.

2. 동경정치학교의 사람들

마쓰모토 군페이(木下謙次郎)의 출신지 시즈오카 현은 에도막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칩거한 곳이다. 막부 직할지인 시즈오카의 엔슈(遠州)가 마쓰모토의 고향인데 이곳은 막부 직할군대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가 통치했다. 이 때문인지 동경정치학교 주변에는 시즈오카와 관련된 인물, 삿쵸(薩長) 전제정부 반대세력이 많았다.

동경정치학교에는 중요사안을 자문해 주는 ‘商議員’²⁴⁾이란 집단이 있

22) 1926년 정치인 木下謙次郎의 강연을 수록한 『木下謙次郎氏講演錄. 第1集』을 『동경정치학교 웅변부』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때의 동경정치학교 소재지는 『東京市 麹町』의 『政友ビルヂング内』였다. 또 1929년 9월 25일 『관보』에는 여전히 『동경정치학교 웅변부』의 모집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23) 마쓰모토가 1911년 설립한 『정신운동 교화단체』로 그의 이력서에 의하면 1912년 이인직이 조선에 『청년교단』 지부를 설립했다고 한다. 이후 활동은 부진하여, 20여년이 지난 1932년 1월 13일 『朝鮮新聞』에 마쓰모토가 서울 『黃金町 二丁目 朝鮮發明協會内』에 교단의 지단(支團)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다시 등장한다.

24) 이들 상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에바라 소로쿠(江原素六), 오오카 이쿠조(大岡育造),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 가타오카 겐키치(片岡健

다. 총 15명인데 이들은 고급관료, 혹은 귀족원 의원, 원로급 중의원 의원이다. 대부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사초 전제정부와 대립하던 이토 히로부미나 입헌정우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동경정치학교 탄생 배후에는 이러한 정치세력이 있었고 이는 정계진출을 꿈꾸는 동경정치학교 학생들을 매혹시켰다. 이들 사이에 이인직도 있었던 셈인데, 바꿔 말하면 이인직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의원’들의 면면, 그 중에서도 조선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全權弁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수행하여 조약문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1889년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딸과 결혼, 1892년 이토의 추천으로 법제국 장관에 취임한다. 1894년 청일전쟁 때는 樞密院 顧問官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와 함께 ‘慰問使’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한다. 조선의 유력 인사 및 해외 공관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들어와 고종과 민비, 대원군까지 접촉한다. 이후 스에마쓰는 법제국 장관으로서 청일전쟁 및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해나갔고, 1907년 황태자 이은이 일본에 끌려갔을 때 그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쓰즈키 게이로쿠(都筑馨六)는 동경대학 정치이재학과(政治理財學科)를 나와 베를린 대학에서 유학한 인물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사위다. 1898년 외무차관이던 쓰즈키는 탁월한 법률

吉),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스에마쓰 겐초, 쓰즈키 게이로쿠,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하야시 유조(林有造), 하라 다카시, 호시 도루, 혼다 마사자네(本多政以), 마쓰다 마사히사(松田正久), 와타나베 구니타케(渡辺國武) 등이다. 이중 이타가키는 이토의 정치적 라이벌로 입헌정우회 성립 시 정계 은퇴한다. 그럼에도 상의원파 강사로 이름이 올라온 이유는 마쓰모토의 여동생 세쓰코(節子)가 이타가키의 장남 호코타로(銚太郎)와 결혼, 두 사람이 사돈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과 어학 능력으로 이노우에와 이토의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한다. 그는 원로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구한말 조선과 관련해 크게 활약하는데, 1896년 야마가타-로마노프 협정서 체결 보좌,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여 방한, 고종한테서 포상까지 받는다. 그 뿐 아니라 을사늑약에서도 이토를 보좌해 함께 참석했으며,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는 일본 대표로 참석, 고종 밀사들의 회의 참석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는 1905년 이토의 조선 통감 취임 때 총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 이전인 1895년 3월에는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하여 어윤중과 함께 조선에 300만원 차관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로써 조선은 일본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었고, 이노우에가 이를 이용해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한다. 이토의 핵심 참모로 1900년 입헌정우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쓰루하라는 1905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통감부 제도를 구축, 1907년 7월 굴욕적인 ‘한일 신조약’ 체결로 강제 병합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상의원 중 하라 다카시(原敬)는 3·1운동 당시의 일본총리로 일본인들이 ‘平民宰相’이라 부르면서 존경하는 인물이다. 무쓰 외무장관이 발탁해 비서관을 하다가 1896년 6월 조선주재 공사로 부임한다.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이 있었고 이를 수습하려 하라가 파견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해 9월 1일 사퇴하지만, 실질적으로 5개월 남짓²⁵⁾ 있었기 때문에 공사로서의 실적은 많지 않다. 다만 고종 환궁 후 이인직이 조중웅과 함께 도일했다면 이인직과의 관계는 각별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호시 도루(星亨)는 영국 미들 템플 출신으로 동경정치학교 운영 이전에 이미 조선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는 조선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요청으로

25) 하라는 1896년 10월 12일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지만 정식으로 사퇴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사퇴 이유는 이토 내각 붕괴 후 제2차 마쓰카타 내각(松方内閣) 성립과 신임 외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 한다.

1895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의 法部 顧問官이 되어 이노우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제2차 갑오개혁인 1895년 1월 7일 ‘홍범14조’가 대표적인 데 행정기구와 분리된 사법제도 확립 등에서 호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⁶⁾. 1895년 10월 8일 민비 시해 사건 직후 호시는 일본에 귀국²⁷⁾, 17일 이토와 이노우에에게 보고한다. 이인직이 재학 중이던 1901년 6월 호시는 교육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바 소타로(伊庭想太郎)의 습격으로 살해당한다.

이상의 상의원과 함께 동경정치학교 강사진도 중요하다. 이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나루세 고사쿠(成瀬公策)의 논문²⁸⁾인데 그는 메이지유신 때 청년기를 보낸 전세대(前世代, 1833년~1855년 생) 강사의 특징으로 에도막부 관료, 혹은 막부의 學問所, 막부 군사학교인 누마즈 병학교(沼津兵學校) 출신이란 점을 들었다. 이들은 학계, 언론계에 종사했는데 메이지 번벌(藩閥)정부의 대책 지점에서 적대적인 논진을 펼친다.

전세대 이후 강사 중에는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아사히나 지센(朝比奈知泉),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처럼 동경제국대 등 국내 대학 출신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유학 경험자로 유럽 보다는 미국 유학이 많았다. 우키다 가즈타미(浮田和民),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곤도 시즈오(近藤賤男), 치바 고조(千葉鉦藏), 아마구치 친타(山口鍬太), 가타야마 센(片山潛), 모토다 사쿠노스케(元田作之進), 노야 다케오(野矢丈夫), 후쿠오카 히데이(福岡秀猪) 등은 모두 마쓰모토와 같은 시기 미국에서 유학²⁹⁾을 한다.

대부분의 강사가 해외 유학파였던 만큼 이들은 이후 대학이나 외무성,

26) 이노우에가 일시 귀국했을 때, 호시가 박영효 등을 교사하여 민비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도 있다. 焉用氏(渡辺修二郎) 『今世人物評伝 第2編』, 1898.11.

27) 야만적 시해사건을 혐오해서 호시가 귀국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민비 시해사건을 일본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귀국시킨 것이다.

28) 위의 成瀬(2002) 논문.

29) 위의 成瀬(2002) 논문.

대장성 등에 진출한다. 또 입헌정우회가 설립될 때, 구라하라 이키쿠(藏原惟廓), 구리하라 료이치(栗原亮一), 다케고시 요사부로(竹越与三郎), 모치즈키 소타로(望月小太郎)는 마쓰모토와 함께 정계에 진출, 다선 중의원 의원으로 국회에서 크게 활약한다. 러일전쟁, 한일합방 과정에서 이들은 학계, 언론계, 관계, 정계에서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헌신하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혈의누』는 청일전쟁 전장 묘사에서 전시 국제공법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경정치학교에서 『군정학(軍政學)』과 『전시 국제공법(戰時國際公法)』을 담당한 신도 사이이치(神藤才一), 청일전쟁 동안 捕獲審檢所の 評定官으로 근무한 시미즈 이치타로(清水市太郎), 이토의 비서 출신으로 청일전쟁 주제의 『국제공법』 강의를 자주 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조선과 관련 깊은 인물들로 그들의 수업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인직을 직접 가르쳤다는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는 게이오대학 출신으로 1887년부터 1895년까지 예일대학에서 법학사, 프린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다음 해에 귀국하여 무쓰의 도움으로 외무성 번역관이 된다. 1902년 11월 7일, 태국 방콕에 2등 서기관 영사로 파견 나갔다가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5월 4일부로 면직되어 『임시 외무성 사무에 종사』³⁰⁾ 하기 위해 귀국한다. 다음 해 5월 16일 遼東守備軍 司令部 公使館 2등 서기관으로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어 러일전쟁 참전 때문에 귀국한 듯하다. 이후 이토의 조선 통감 부임 때 함께 수행하여 외교부장이 되었으며, 합방 후 총독부 외사국장, 총무부장관, 중추원 서기관장을 역임한다.

프랑스 리옹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는 일

30)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月報 第二卷(外・報2)』(外務省外交史料館), 이 무렵 松本君平도 러일전쟁 시찰을 목적으로 중국에 건너가 있었다.

본 민법 초안을 작성했고 화불법률학교 교장을 한다. 1906년에 이토의 요청으로 한국정부 법률 최고고문으로 취임, 法典調査局 顧問으로서 법전 편찬, 不動産調査會 회장으로 토지제도 법률 등을 기초한다.

원래 『재팬 메일』 기자였던 즈모토 모토사다(頭本元貞)는 1896년 이토의 비서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지만 1906년 이토의 요청으로 영국인이 발행하던 영자 신문 『Seoul Press』를 매입, 사장 겸 주필로서 친일 선전활동을 전개한다.³¹⁾ 이인직의 『국민신보』, 『만세보』는 물론,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환경과 관련해 보다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누차 강조하는 바처럼 동경정치학교 배후에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교육기관과 달리 정치적인 의미가 큰 학교다. 그 만큼 동경정치학교 관련자들은 조선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었고 이인직과는 단순한 사제기간에 머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고작 과외생(科外生)으로서 이인직을 가르친 적이 있다는 고마쓰는 ‘舊師’니 ‘賢師’³²⁾니 하며 이인직이 극진하게 대접한 추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마쓰한테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인직이 조선에 귀국하기 전, 러일전쟁 통역으로 참전할 때, 또 귀국 후 여러 활동에서 이들 강사진은 깊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인직의 일방적 구애도 있었겠지만, 조선으로 넘어 온 그들 ‘선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이인직이기 때문이다.

31) 러일전쟁 중 한국 궁중은 반일신문 『Korea Times』를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사전에 발각된다. 『Japan Times』의 기자였던 영국인 코웰이 즈모토에게 알려 드러난다. 코웰은 원래 베델과 『Korea Times』를 출판할 생각이었는데 의견충돌로 베델 혼자 『大韓每日申報』를 발간한다. 베델의 『대한매일신보』 탄압을 한편으로 통감부에서 지원으로 발간한 것이 즈모토의 『Seoul Press』다.(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2권』)

32) 小松綠, 『朝鮮併合の裏面』(1920, 中外新論社)

Ⅲ.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와 이인직

촉망받는 유력 정치인 마쓰모토는 오늘날 거의 잊혀진 인물이다. 사실 그는 보통선거나 여성 참정권 운동처럼 근대 일본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진보적인 ‘민중 정치가’³³⁾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또한 겉멋 든 서양풍 인사나 진보적 인사를 비꼰 때 썼던 ‘하이칼라’³⁴⁾의 대장격이기도 하다. 동경정치학교에서 함께 강사를 했던 다케코시 요사부로, 고테가와 도요지로(小手川豊次郎)와 더불어 ‘삼대 하이칼라’였던 마쓰모토는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 졸업, 브라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당대 최고의 유학과 엘리트였다. 1896년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마쓰모토는 이토와 함께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후에도 이토와의 관계는 긴밀했는데, 특히 입헌정우회 설립 때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

당대 최고의 풍자가이자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야마구치 고겐(山口孤劍)은 마쓰모토를 “정신적인 하이칼라”라고 높이 평가³⁵⁾한다. 물론 야마구치 고겐이 동경정치학교 출신이란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정치가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쓰모토 군페이 선생도 경조부박(慶弔浮薄)한 신문기자들 때문에 마냥 냉조열매(冷嘲熱罵) 속에 묻히려 하니 진실로 한탄”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33) 松本君平 연구는 成瀬公策의 연구가 유일한데 위에서 인용한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學校(下)』 이외에 『大正デモクラシーと民衆政治家松本君平』(『静岡縣近代史研究』, 1998), 『民衆政治家松本君平の中國認識』(『静岡縣近代史研究』, 1999),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學校(上)』(『静岡縣近代史研究』, 2001), 『アジア主義の蹉跎-松本君平の場合』(『静岡縣近代史研究』, 2005)가 있다.

34) 웃기를 높게 세워 밋을 부린 사람을 일컫는 ‘하이칼라’는 『東京毎日新聞』 주필이고, 동경정치학교 간사였던 이시가와 한잔(石川半山=石川安次郎)이 만든 용어라 한다.

35) 山口孤劍 『天成の好男兒松本君平先生』(『明治百傑伝 第1編』, 1911.1, 洛陽堂)

1900년대,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 일던 시점, 마쓰모토가 기치로 내걸었던 보통선거와 여성참정권 주장은 보수 언론의 매도 대상이었다. 마쓰모토의 보통선거 주장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25년 3월 제50회 의회에서 보통선거법이 성립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배제 당했고 마쓰모토 또한 변함없이 기인취급을 당한다.

사실 마쓰모토의 행적을 살펴보면 기인취급을 받을 만하다. 국회의원 신분에 중국에 넘어가 지내기도 하는데, 1917년 손문의 광둥군 정부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마쓰모토는 몽골에서 본인 또한 칭기즈칸의 후예라며 지역 지도자들과 만난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중국, 몽골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마쓰모토는 조선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1896년 1월 11일 자 『국민의 벗(國民之友)』에 발표한 「조선문명책(朝鮮文명策)」에서 조선의 ‘일본 동화책(同化策)’을 제안한다. ① 일본인종의 조선 귀화, ② 일본인의 조선 이주, ③ 조선인의 교육, ④ 일본 화폐의 공동 사용이 그 내용이다. 이 중에서 ③ 조선인 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다행히도 조선 학생, 일본 유학하는 자, 그 수 적지 않다. 몇 년 후 어느 날 일본문명 수입자가 되어 조선 문명의 도화선이 될 자, 필시 이 학생 중에서 나올 것이다. (중략) /혹 조선 문명을 돕고 독립을 확고히 하려면 조선인 교화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의협심 있는 미국인이 일본 유학생을 우대하고 호우(好遇)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공명정대와 인도(人道)의 대의를 내걸고, 서쪽 이웃 자매국을 대해야만 한다. (중략) 이는 비단 동양문명의 전교자(傳敎者)인 우리 책임일 뿐 아니라, 과거 조선에게 빚진 바를 갚아야 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 마쓰모토는 “12세기까지 일본문명의 원천을 구하면 대개 조선귀화인에 귀결”된다고 “조선이 일본화하더라도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임

을 잃지 않는다. 조선 독립은 만대불역(萬代不易)”이라 강조한다. 조선귀화인이 일본 문명을 구축한 것처럼 일본귀화인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쓰모토의 주장은 아마구치 고젠이 지적한 「순수」함, 혹은 순진함이 드러나 흥미롭다. 또 조선유학생에 대한 기대도 피력했는데 이인직을 받아들여려는 그의 적극적 태도 또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1910년 한일합방 전후, 일본에 입국한 이인직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외무성 자료인 「이인직의 행동」³⁶⁾에서 동경에 도착한 1909년 12월 19일부터 귀국하려고 동경을 출발한 다음 해 3월 13일까지 이인직은 ‘위장병원(胃腸病院)’에 입원한 마쓰모토를 총 24회(1910년 3월 6일 부재 중 방문까지 포함) 찾아간다. 90여일 동안 사, 나홀에 한번 그를 방문한다.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한일합방을 포함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겠지만, 이인직의 행보가 평범하지는 않다.

마쓰모토의 위장병원 입원 날자는 확인불가능하나 입원 직전 그는 중국에 있었다. 1909년 7월 중국에서 『차이나 트리뷴』 첫 호를 낸 마쓰모토는 “重患”에 걸리는데 “11월 하순 그의 아버지가 大患에 걸렸으며 동시에 의회 개회 시기가 다가옴”³⁷⁾에 따라 귀국하는데 이때의 중환이란 ‘맹장염’³⁸⁾인 것 같다. 어쨌거나 마쓰모토가 1909년 12월 24일 아버지의 사망 후 위장병원에 입원했다면, 이인직이 동경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된 28일에 서둘러 마쓰모토를 병문안 간 셈이다.

한 가지 더 러일전쟁 기간 이인직의 귀국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행동에

36)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伊藤公爵薨去後二於ケル韓國政局並二總理大臣李完用遭難一件」(外務省外交史料館)에 일본 밀정들의 「이인직의 행동」 보고서가 있는데 이하 「이인직의 행동」이라 표기함.

37)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新聞雜誌操縱關係雜纂／「チャイナ、トリビュン」改メ「チャイナ、アドヴァタイザー」第一卷」(外務省外交史料館)

38) 위의 山口孤劍의 책.

좀 더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

이인직은 1904년 2월 22일 일본 육군성 제1군 사령부 한어 통역(韓語通譯)으로 러일전쟁에 참전, 5월 청나라 봉황성(鳳凰城)에서 해고³⁹⁾된다. 2~3개월 남짓한 짧은 참전⁴⁰⁾ 후 이인직은 마침내 귀국한다.

그런데 『陸軍省人事局補任業務課詳報』⁴¹⁾에 이인직의 통역 참여에 관한 몇 가지 단서가 있다. 러일전쟁 동안 새롭게 정하거나 개정한 규정 등을 정리한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통역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당시 한어 통역자는 주임관(奏任官) 대우가 총27명, 판임관(判任官) 대우는 93명으로 한국인 주임관 대우는 한명도 없다. 주임관 대우는 일본인 경력자 중 무시험 채용 통역관이 10명, 일반지원 유시험(有試驗) 채용 인원이 1명이었다. 또 한국어과 졸업 또는 재학 중 외국어학교 졸업생 및 학생이 각각 9명과 7명이었다. 반면 직접 채용한 한국인 통역 판임관 대우는 총 13명이었다. 가장 많은 급료를 받는 이가 40엔이었고 인원은 4명이었으며 나머지 9명 중 1명이 35엔, 7명이 30엔, 1명이 25엔이었다.

또 다른 자료 『戰時各部隊通譯配屬定員表』⁴²⁾에 의하면 군사령부에 배치된 한어 통역은 총 6명이었다. 이 6명 안에 일본인도 아니고 주임관도 아닌 판임관 대우 이인직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39)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편, 1972),

40) 일본 육군성 자료 『明治37年1月起 人事諸達綴 大本營 陸軍副官 二冊の内1』에 수록된 『日露戰役に關し各部隊に配屬すべき通譯の人員定員表』에는 『清語通譯ハ清國內、韓語通譯ハ韓國國內ニテ作戰スル期間附屬』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1905년 5월 초 압록강 전투에서 패한 러시아는 같은 달 중국 요동반도로 후퇴했기 때문에 이인직은 이 무렵 『해고』된 듯하다.

4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明治37、8年戰役 陸軍省人事局補任業務課詳報』(防衛省防衛研究所)

4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明治37年自2月8日至2月26日第1号副臨号書類綴』(防衛省防衛研究所) 내 『通譯配屬人員の件』

인직이 제1군 사령부 한어 통역으로 선발된 데에는 본인의 일본어 실력 이외에 마쓰모토나 고마쓰 같은 동경정치학교의 인맥, 일본 유력자의 조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쓰모토 군페이⁴³⁾의 움직임도 관심을 끈다. 마쓰모토는 자신의 약력 소개⁴³⁾에서 “의회 폐회 후 곧바로 여순(旅順), 봉천(奉天)의 전장을 순시”했다고 말한다. 제21 임시의회는 1904년 11월 30일~1905년 2월 27일로 그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실제로 1905년 3월, 마쓰모토는 러일 전쟁 참관을 위해 여순으로의 도항⁴⁴⁾을 시도한다. 그의 도항에 관한 정확한 일정은 확인 불가능하나 최소한 1905년 5월 30일에는 중국에서 장문의 편지로 정우회 본부에 정세 보고서⁴⁵⁾를 보내고 있다.

위에서의 언급처럼 이 무렵 고마쓰는 요동수비군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이 중국에서 마주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큰데, 그렇다면 이인직, 마쓰모토, 고마쓰, 그리고 아리가 다가오는 러일전쟁 전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함께 체험한 것이 된다.

이런 공감대를 생각할 때 마쓰모토가 동경정치학교에서 강의한 『신문학』은 이인직 언론, 문학 활동과 관련해 훨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초로 신문을 학문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이 책지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비체계적이고 중첩되는 내용도 많지만 이인직의 언론과 문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많이 준다.

43) 『徳教とは-現代人の新しき宗教』(1935.11, 社団法人 青年教団) 수록 「青年教団總長松本君平略歴」.

44) 『明治37~38年 戰時書類 卷126 艦船便乘 便乘許可登記簿 便乘に關する諸件』(海軍省)에 의하면 마쓰모토는 1905년 3월 8일 『戰地視察』 허가를 요청하나 해군성은 전투지역 방면 왕복 배편이 적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부정기적이란 점을 들어 육군성의 허가를 받아 『大阪商船株式會社』의 정기 배편을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45) 成瀬公策의 논문 「民衆政治家松本君平の中國認識」에서 재인용.

마쓰모토가 『신문학』에서 강조한 부분은 신문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본인이 신문기자로 활동했던 미국신문을 주요한 예로 드는데 미국신문은 “소위 『지상(紙上)의 국민교육 대학교』로 정치, 문학의 취미를 국민 최하층까지 보급시킨다는 점”⁴⁶⁾에서 세계 최고라 말한다. “여론의 선도자인 동시에 또한 여론의 창조자”인 미국신문을 마쓰모토는 ‘양키 저널리즘’이라 부르면서 신문의 대중적 계몽성과 여론의 정치적 과급력에 주목한다. 그리고 신문이 계몽성과 정치적 과급력을 지니기 위해 “상업적(商業的, 비즈니스)이어야 한다”⁴⁷⁾며 그 상업적 이득과 실질적인 효용성을 강조한다. 공명정대한 기자의 윤리의식, ‘공인(公人)으로서의 신문기자’ 사명도 중시하지만, 이런 신문의 ‘상업성’ 주장은 마쓰모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또 다른 마쓰모토의 특이점은 기사 작성을 소설 창작과 유사하게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신문의 상업적 운영과 깊이 관련되지만, 그는 기사거리로서 가치 있는 것은 “패사(稗史) 소설가의 좋은 재료”⁴⁸⁾이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방문기사’는 “살아있는 소설”⁴⁹⁾이라 말한다. 심지어 소설도 신문처럼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문학자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길을 벗어나서 달리 좋은 방법이 없다”⁵⁰⁾고까지 단언한다.

그리고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을 「잡지 및 신문 문학자의 주의(注意)」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6) 위의 책, p.248.

47) 위의 책, p.14. 이러한 상업성을 위해 마쓰모토는 『신문학』에서 편집 등 신문제작의 전문 기술의 필요성 강조는 물론, 삽화나 신문소설의 필요성 등 다양한 시도를 제안한다.

48) 위의 『新聞學』, p.144.

49) 위의 책, p.100.

50) 위의 책, p.148.

단편소화가(短篇小話家)로 가는 빠른 길(捷徑)은 특종(特種)한 사회를 연구 주체로 삼고, 그 사회의 특종한 생활에서 생긴, 성격이 특종한 모험, 역사적 구비, 풍속, 습관 등을 모두 모으고, 이들 재료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아 그 정신 있는 바를 소화한 후,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題目)을 포착해 그 사회 고유한 벽성(癖性)을 가지고 상상으로 이를 수식하는데 있다. 이렇게 완성된 한편의 소화 안에서 그 사회의 정신과 특색을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 소설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한 지방 또는 한 사회의 특종한 경우에서의 기이한 인정, 세태를 묘사하는 것이 세속의 주의를 환기하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그 그려내는 바가 묘묘괴괴(妙妙怪怪)하고, 제 아무리 그 묘사하는 바가 신기, 기발하더라도 보통 일반의 인정과 도리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⁵¹⁾

제임스 앨런(James Lane Allen)의 단편소설론을 『신문론』에 인용하면서 마쓰모토는 ‘특종’한 인정과 세태를 묘사하되 그 사회의 ‘정신과 특색’까지 그리라 주문한다. 이는 이인직이 『미야코 신문(都新聞)』 습작시절, 13년 동안 수절한 조선 『과부의 꿈(寡婦의夢)』(1902.1.28.~29)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사회의 유교적 ‘정신과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흥미 본위의 ‘신기, 기발’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정’과 ‘도리’라는 보편적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방문기사’의 입장감과 함께 독자를 납득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라 하겠다. 즉 이런 상업적 글쓰기는 신문 ‘상업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인직이 습득한 문학 표현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51) 위의 책, pp.160-161.

IV. 나오며

1895년 청일전쟁 전후부터 1905년 러일전쟁까지 일본 문단은 이전 계몽주의 문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자연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으로 다카야마 조규(高山樗牛) 같은 비평가는 ‘일본주의’의 기치 하에 ‘국민문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문단 곳곳에서는 계몽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새로운 소설 요구가 비등했고 이른 바 광명(光明)소설, 가정소설, 사회소설이 등장한다. 190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금색야차(金色夜叉)』나 도쿠토미 소호(徳富芦花)의 『불여귀(不如歸)』, 기쿠치 유희(菊地幽芳)의 『나의 죄(己が罪)』처럼 대중성과 함께 여성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작품, 이후 대중소설로 불리는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문단의 이런 분위기는 마쓰모토의 ‘상업적’ 글쓰기와 맞닿아 있다. 적극적으로 독자의 관심을 견인하는 ‘특종’ 기사작성의 방법은 대중소설의 창작 방법으로 이어지는 발상으로 이런 신문관과 창작의식은 마쓰모토 개인의 독창적 고안이 아니다. 『신문학』에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신문이나 프랑스 신문의 전형적 특징⁵²⁾으로 전 세계 언론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비껴 말해 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언론과 문학의 흐름이 이인직 문학의 저변을 형성한다. 동경정치학교의 주변인물과 이인직의 근대 지(知) 형성, 마쓰모토 군페이의 상업적 글쓰기와 이인직 문학의 통속성 문제, 그리고 세계적 문학 조류와 이인직 문학의 관련성은 이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일본과 세계의 동시대적 환경은 이인직 문학과 한국 개화기 문학을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게 해야 1880~90년대 정치소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동

52) 마쓰모토는 『신문학』에서 세계 각국의 신문 사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신문의 특징은 ‘연재소설’이라고 소개한다.

시대 일본 사회와 문학의 최대 화두였던 '여성'과 '가정'이 한국 개화기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현조, 『이인직 소설의 창작 배경 연구』, 『우리말글』 43, 우리말글학회, 2008, pp.213-236
- 구장률, 『신소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pp.245-302.
-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 형태로서의 신소설 - 이인직의 경우』, 『한국근대소설사 연구』, 1986.
- 다지리 히로유키,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
- 유희봉, 『이인직 연구에 대한 몇가지 재고찰』, 『현대소설연구』 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pp.253-283.
- 함태영, 『이인직의 현실 인식과 그 모순』, 『현대소설연구』 3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pp.7-30.
- 田中英夫 『山口孤劍小伝』, 花林書房, 2006.
- 成瀬公策, 『大正デモクラシーと民衆政治家松本君平』, 『静岡縣近代史研究』, 1998.
- 成瀬公策, 『民衆政治家松本君平の中國認識』, 『静岡縣近代史研究』, 1999.
- 成瀬公策, 『松本君平の立憲思想形成と東京政治學校(上, 下)』, 『静岡縣近代史研究』, 2001~2002.
- 成瀬公策, 『アジア主義の蹉跌-松本君平の場合』, 『静岡縣近代史研究』, 2005.
- 藤原恵, 『新聞學を拓いた人たち』, 『關西學院大學社會學部紀要』, 1967.
- 前田又彦, 『政治記者 前田蓮山物語』, 2018.
- 吉田善明, 『法學部の歴史』, 『思索の樹海』, 1993.

Abstract

The Surroundings of Lee In-jik's literature

Pyo, Se-man

Lee In-jik, the controversial author of modern Korean literature, remains as largely unknown. In this sense, the traces of Lee's stay in Japan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not only his literary world but also the literature of the enlightenment era that began there. In particular, 東京政治學校 which Lee has written in his resume as his only academic background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as his activities in the media and political circles. 東京政治學校 was a formal school for the promotion of politicians and its participants, including principal Matsumoto Kunpei (松本君平), who seemed to impa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ining of Lee's modern knowledge and deep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his return to Korea, settlement and activities in Korea. Also, according to a secret document on Lee In-jik in 1910, Matsumoto and Lee were particularly close. Especially, Matsumoto's 新聞學 provides key clues in understanding Lee's literary and political consciousness. Matsumoto, who had experience as an American newspaper reporter, defines newspapers as "a university that educates the people." And he emphasized popular writing for enlightenment, which had a great impact on Lee In-jik's literature.

Key Word : Lee In-jik, Matsumoto Kunpei, the Enlightenment Novels, Tōkyō Seiji Gakkō, Shinbungaku

표세만

소속 : 군산대학교 교수

전자우편 : semanpyo@kunsan.ac.kr

이 논문은 2019년 1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